포천사회 知識人 ㊼

대진대학교 **이 근 영** 교수

“예총이나 문화원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꿈과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포천의 설화, 지명유래 등을 연구해 발표하고 지명유래집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땅이름 찾기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앞으로도 방언학이 겸비된 땅이름 찾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대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근영(52·**사진**·문학박사)교수는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충남 태안초등학교, 태안중학교, 영등포성남고,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대진대학교 개교와 함께 부임한 이 교수는 국어학과 음운론을 전공했으며 석사학위논문은 ‘국어조사 「-는/-은」과 「-이/-가」의 연구’를 발표했고 박사학위논문은 ‘국어 변동규칙의 통시적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대진대학교에서 국어사, 음운론, 국어학개론, 중세국어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진대학교 교무처장, 초대 인문과학대학장,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포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관인면 냉정리의 경우, 원래 이름은 찬우물이었는데 일제시대에 한자로 바뀌어 냉정으로 변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교수는 경기도지사에게 북쪽을 좀 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도록 협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를 찾는 문화예술인들의 부재는 지역적으로 문화예술 역량이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예총이나 문화원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한다.

특히 이 교수는 포천시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과거 포천시는 포천이 낳아서 키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어 비록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 아니냐?”는 논어의 한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이 교수는 사람답게 웃으면서 다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고 밝혔다.

그동안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공 이외에도 꿈과 열정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 열정은 뜨거운 열정이어야 한다. 학교 동아리 국토순례단 지도교수를 6년째 맡고 있다. 이번 방학기간에도 600~700km를 순례했다. 목표를 세워 열정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국어국문학과의 학교 행사로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하고 있다. 덕수궁 세종대왕을 참배하고 1년에 1회 학술답사를 실시한다.

포천사회 문화예술과 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교수는 포천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물론 학술부문이다.

앞으로도 이 교수는 포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땅이름을 분석해서 원래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해 나간다면 원래의 지명유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때 포천의 지명유래를 찾기 위해 학생들 160명을 데리고 포천 전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지명유래를 사람들에게서 전해 듣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들 노인들마저 돌아가시면 근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잃게 된다. 그 전에 하나씩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교수는 한글학회(평의원), 한말연구학회(부회장), 한국언어학회(회원), 한국음성학회(회원) 등 학회활동에도 남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으로는 경기문화재단 자문위원, 경기문화재단 이사, 포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독학사 고시 출제/채점/선재위원, 포천시 아기이름 지어주기 작명위원, 포천군지 집필위원, 연천군지 집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주요논문과 저서는 다음과 같다.

▶고시조에 나타난 주흥에 대하여(건대학보, 1976) ▶국어문형문류에 대한 고찰(건국어문학 11,12합집, 1987) ▶소학언해에 나타난 음운변동규칙(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8집, 1989) ▶16세기 국어의 변동규칙(한글207호, 1990) ▶국어 변동규칙의 역사적 연구(대제각, 1990) ▶문헌음운학을 위한 제언(건국어문학 13,14합집, 1990) ▶태평광기 언해 멱남본의 음운학적 고찰(건국어문학 15,16합집, 1991) ▶현대 국어 임자자리 토씨 연구(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1992) ▶국어 문헌자료분석을 위한 제언(대진논총 1집,1993) ▶18세기 전기 국어의 변동규칙(한글 227호, 1995) ▶명의록 언해에 나타난 변동규칙 연구(한말연구2호, 1996) ▶임자자리토씨 연구사(한국어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1996) ▶18세기 국어의 변동규칙(한말연구4호, 1998) ▶간판언어의 사회문화적 연구-사회언어학적 관점으로(교육과 삶의 질, 1999) ▶초등학교 교사의 발음 교육자질에 관한 연구(교육논총1집, 1999) ▶초등학교 발음 지도의 문제점 연구(교육논총1집, 1999) ▶19세기 국어의 변동규칙(한글246호, 1999) ▶교린수지의 음운론적 연구(한말연구8집, 2001) ▶첩해몽어의 음운론적 연구(한말연구 13집, 2003) ▶국어 변동규칙의 역사적 연구(대제각, 1990) ▶생각과 표현(대진대 출판부, 1997 공저) ▶언어와 삶(대진대 출판부, 1998, 공편) ▶국어사 강독선(박이정, 1998 공편) ▶포천의 설화(포천향토문화 자료집 7집, 포천문화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더 이상 늦기 전에 확실한 지명유래 정리해야

취재파일 | 지방의원 의정비 어떻게 해야하나

의정활동 비례 점진적인 인상 필요

유능한 인재 지방의회 진출 선망대상 돼야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다. 또 내년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결정은 오는 10월말까지 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봉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의원들은 얼마 되지 않는 의정비로 인해 제약을 받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10월말까지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 가운데는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인 활동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책정된 의정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무보수 명예직일때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았는데 현재 받는 금액과 별 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보수지급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고 자치단체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해 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해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유급제가 첫 시행될 때 서울시의원 의정비가 6천8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도의원은 3천96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의원의 경우 5천421만원이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의원 3천8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증평군이 1천92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된 바 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는 3천99만원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시 의정비가 3천7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양시 3천681만원, 수원시 3천780만원, 남양주시 3천414만원 등 3천만원대가 20개 시군이다. 이에 비해 의정비가 2천만원대는 포천시 2천760만원을 비롯해 의왕시와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2천520만원, 안성시 2천316만원, 여주군 2천250만원으로 모두 11개 시군이다.

▶의정비 동결입장

의정비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의정비 산정기준을 먼저 들고 있다. 의정비를 산정할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봉급만 인상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자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고 시행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주민들은 유급제 전환에 맞춰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하는 의정활동, 활성화된 조례제정과 개정 활동 등을 먼저 보고나서 의정비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있는데,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 의정비를 올해 2천720만원이었던 것을 2배 많은 6천9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자 시민들은 편법인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부산과 전남지역 기초단체에서 발생하자 행정자치부는 의정비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입장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한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능력있고 우수한 인재 보다는 토호세력들이 대부분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왔다는 점을 들고있다.

유급제 시행의 근본취지는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라는 직위와 보수면에서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지방의원은 “얼마 안되는 봉급으로는 기름값도 감당하지 못한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도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급제 의원은 다른 직업과 겸직할 수 없다”면서

“유급제를 시행하려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일 당시에도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보조비 등을 합하면 2천120만원이었는데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의원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활동비가 부족해 땅을 팔아 활동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보완책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조례제정 및 개정권, 행정사무감사권, 예산심의 및 의결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예속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의회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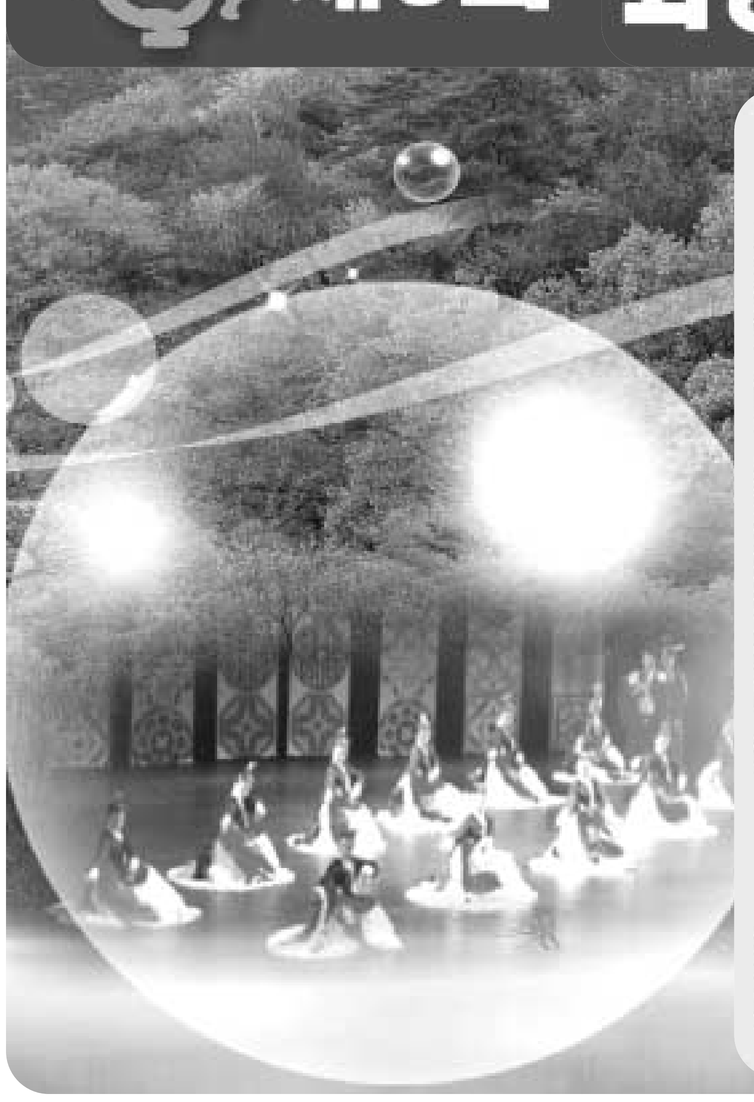
그러나 유급제를 시행한 것은 지방의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방의회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유급제를 시행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복적인 취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능력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싶어할 만큼 매력적인 직위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장하는 부단체장급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9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주최 :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
일시 : 2007년 10월 7일(일요일) 09:00-경연 마칠때까지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 한국무용협회
국회의원/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예총
협찬 : 포천신문



제9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개최요강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9월10일(월) ~ 10월5일(금)

(7) 경연대회 일정 및 장소

(8) 참가신청 및 접수안내

(9) 유의사항

(10) 참가대상 및 구분

(11) 시상식은 당일 개최함.

(12) 참가서류 및 참가비는 반환치 않음.

제9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장

✻ 시상내역 ✻